

실직자·노인 건강 지키는 '약손'



◇조계종 불자약사보리회는 11일 탐골공원에서 실직자와 노인 1천여명에게 무료투약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불자약사보리회 탐골공원서 무료투약

매월 1천여명에 한·양약 조제 금강경 소책자 1천부 보시도

"열심히 일하고 열이 많아 고생했는데 불교신자 약사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진찰해주고 약도 조제해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강태성 할아버지(80. 중랑구 중화동)는 매달 무료투약 자원봉사활동 때마다 나오겠다는 말과 함께 삼지돈으로 마련했다는 초코볼 1봉지를 유호순(롯데백화점약국 약사) 총무손에 가만히 건네준다.
조계종 불자약사보리회(회장 백숙희)가 11일 탐골공원에서 12명의 회원 약사분들이 참가한 가운데 실

직자 및 노인 1천여명에게 무료투약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장.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밀려드는 사람들로 손실 틈이 없다. 회원들은 점심도 거르거나 김밥도시락으로 해결해야 할 정도로 바쁘지만 얼굴에는 웃음을 머금은 자비보살상이다.
자원봉사는 불교이벤트, 서울불교청년회 회원들도 분주함 가운데서도 약을 나눠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친절하게 맞이한다.
이날 행사에서 약사보리회는 할머

니 할아버지들에게 관절염 혈압 천식염 피부염 등 1천여만명 상당의 한약·양약을 보시했으며 특히 금강경 소책자 1천부를 마련하여 법보시도 함께 했다.
9월 27일 '불교발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자'는 취지로 12명의 약사분들이 모여 창립한 조계종 약사보리회는 앞으로 매월 둘째주 일요일 무료투약행사를 정기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백숙희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실직자와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며 "열심히 정진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약보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보리회는 한번 행사에 많은 예산이 필요해 무료투약 행사에 경제적인 후원을 해 줄 분들을 찾고 있다. 문의 유호순 총무 (02)959-3298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a.com)



제17회 불교미술대전 개막

제17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 14일 서울 관훈동 공평아트센터에서 개막했다. 개막식에서는 금상을 받은 한주영 오진균씨 등 입상작품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됐으며 조계종 원로 석주스님을 비롯하여, 총무원장 일주스님, 문화부장 덕문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우스님, 이길용 총무실장, 윤창학 총무관, 송석구 동국대 총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 축하하고 입상작들을 감상했다. 불미진 입상작은 27일까지 전시된다.



故 윤이상 부인 '내남편...' 출판회

故 윤이상선생 명예회복추진위원회(공동대표 설정스님, 법타스님, 황병기)는 15일 송림클럽에서 故 윤이상 부인 이수자씨의 회고록 <내 남편 윤이상>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윤이상선생 3주기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법타스님은 "내 남편 윤이상"은 이수자여사가 이념과 정치의 굴레 때문에 평생 고국방향을 등지고 타국에서 활동하다가 타계한 윤이상 선생의 위대한 생애와 애절한 사랑을 혼신의 정열로 엮은 책"이라고 소개하고 남북통일의 염원을 토로했다.



오봉산 석굴암 천일기도 입제

경기도 양주군 오봉산 석굴암 회주 초안당 유성대선사 백일제 및 토지불사 원만성취 천일기도 입제식이 지난 9일 오전 조계종 제25교구 분사 봉선사주지 밀운스님과 주지 도일스님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은 또 법요집 출판기념회 및 신도회 제발족 법회도 함께 열려 제4대 신도회장에 황춘만씨가 선출됐다.

"자원봉사로 불국토 실현"

동블라이온스클럽 첫 모임

복지시설·군법당 등 후원

동국대 불교대학원 수료생들이 모인 국제라이온스협회 동블라이온스(회장 윤천수, 정일감정평가법인 대표)가 14일 3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1차모임을 갖고 봉사를 통한 불국토를 실현했다.
이날 모임에서 윤천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더욱 공부하고 정진하여

회원간 유대와 친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봉사의 라이온스 이념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호가이딩(국제라이온스 354-C지구 1지역부총재)은 "동블라이온스가 13일부터 국제라이온스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됐다"며 "내년까진 회원을 108명으로 동결하여 보다 건실한 단체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블라이온스는 불교복지시설 방문, 군법당 지원사업, 동국대 재학생



장학금 지급, 불교신행행사 지원 등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후 6시 타워호텔 그랜드볼룸 1층에서 제1지역 1.2지대 합동 원레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우리 모임에선

연등회 경북지부 설명회

국민회의 연등회(회장 박성규부총재)는 14일 대구 거송기전에서 20여 개가신단체 임원들을 초청하여 대구·경북지부 창립설명회를 가졌다. 대구·경북지부 창립준비위원장인 이용택 경주개발공사 사장은 "원용회동사상을 토대로 동서회합에 이바지하고 대구불교회관 건립과 대구 같은사지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승파구청 불자회 사찰순례

승파구청불자회(회장 유종원)는 18일 90여명의 회원 및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고창 선운사와 영광 온선암으로 사찰순례를 다녀왔다.

심우회 육군교도소 위문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11월 1일 장호원 육군교도소를 방문하여 위문법회를 갖는다. 위문법회는 법회, 장기자랑, 불교레크리에이션 등이 준비된다.

경주·원주서도 운불련 시동

관광안내·통신문활동·차량지원 등 사업

성되면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불법홍포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며 "불자회는 관광안내 홍보책자 배포, 불교방송통신원 활동, 행사차량

지원등을 통해 일선포교사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원주지역에도 원주운불련 자회(회장 최준영)가 창립됐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원주 성불원에서 법회를 봉행한 원주운불련은 앞으로 교리공부를 통한 신심함양과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기로 했다.
원주 운불련 자회 최준영회장은 "불자들을 위해 친절한 호혜적시제(0371-763-9911)를 시행하고 있다"며 "조직 강화를 위해 회원배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 큰 짐지기를 자청하며 ...

인륜으로 심한 격변기에 교단과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원로큰스님들과 중진 대덕스님들, 그리고 전 중도님들의 청안하심을 불보살님전에 기원합니다.
소납 설조는 이러한 시기에 교단을 위해 봉사를 하고자 얼마전 이련재(漣蓮齋)를 열고 미려하나 교단발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납 설조는 그동안 교권수호와 불법홍포라는 출가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성스러운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덕과 복의 넉넉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장애를 맞이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처님의 가피와 제현들의 살핍으로 무난히 극복하고 오늘에는 교단의 큰 살림살이를 책임지고자 대덕 제현들의 선택하심과 원로큰스님들의 인허하심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원로큰스님들과 중진대덕 스님들께서 저 설조의 교단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충성을 심부 헤랑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소납이 그동안 불국사 주지로 재직하면서 이룩한 몇가지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연꽃이 사라졌던 안압지에서 연꽃을 다시 보도록 하였습니다.

불국사 주지로 부임한 후 얼마되지 않아 소납은 매우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불자들에게는 고향처럼 느껴질 정도로 불교문화가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불교성지 경주의 안압지에 심어져 있던 연꽃이 누군가의 소행으로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소납은 약 4개월에 걸쳐 사 당국자들과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질책하여 마침내 95년 4월 30일 연꽃을 다시 심었다는 통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오늘날 안압지를 찾는 관광객들과 불자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싱그러운 연잎과 맑고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연꽃을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고속철도의 경주 도심통과를 단식기도로 저지, 불교성지 경주가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고속철도 노선을 경주 도심을 피해 외곽으로 우회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92년 11월 말경 당시 민자당 대통령 후보가 우리 교단대표에게 도장날인을 해서 보내온 중요한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 교단에 대해 어떠한 사전 양해나 설득도 없이 고속철도 노선을 경주도심을 관통해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던 것입니다. 천년고도의 정취를 해치고 문화재의 막대한 훼손이 불가피하므로 고속철이 경주도심을 통과해서는 안된다는 학계와 문화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속철 공사는 도심관통쪽으로 굴어져 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이에 소납은 경주지역을 관장하는 교구장으로서 위법 망구의 자세로 불교성지를 지키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이를 부처님전에 간절히 고한 후 개발이외이라는 눈앞의 이익에 휩쓸리는 많은 국민들의 의식을 일깨우고자 단식정진을 하였던 것입니다. 천년고도를 지키려는 뜻있는 인사들의 노력에 힘입어 소납의 단식정진은 마침내 성취되었고 경주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과 국민, 문화계, 학계, 종교계 인사들과 함께 불교성지 경주를 지켰다는 기쁨을 같이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문화재관람료를 인상하여 어려운 사찰재정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든 물가와 일반 경비는 다 인상이되었지만 어쩌면 일인지 사찰 문화재관람료만은 GNP가 우리나라의 1/10 정도가 되는 후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사찰 경제는 물론이고 문화재의 보수와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당시의 정황이었음은 두루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문화재관람료의 사용과 조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이 문화재 소유자의 재량으로 이관되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시 관료위원회 위원장 소임을 맡았던 소납의 주도과감히 문화재관람료를 현실화하였던 것입니다. 사찰의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추진하는 문화재관람료 인상에 대해 정부의 눈치를 살피던 당시 총무원집행부가 무모하고 무지한 반대를 해왔지만 소납은 관람료 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인상 직후 밀어닥친 IMF한파를 관람

료 사찰들이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넷째, 불국사가 운영주체인 (법보신문)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언론을 통한 교단 구성원의 의식개혁은 물론 종교편향 정책이나 훼손사태와 같은 교단 외부로부터의 교권유린 사태를 적극 저지, 자주적 교권수호에 앞장섰습니다.

소납이 발행인을 맡는 동안 <법보신문>은 초등학교에서의 특정종교 강요행위, 검정고시의 평일시행 강행, 대통령 국방부 중앙교회 예배 및 불교법회 방해, 육군 특수전학교의 법당인 오물투기 및 불교활동 방해사건 등 각종 훼손 및 종교편향 사건 등을 주도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불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섯째, 뜻을 같이하는 교구본사주지 스님들과 함께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본사주지모임'을 결성해 자주적 교단운영과 함께 불교가 민족통종교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앞장서 왔습니다.

본사주지모임을 통해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 분리징수를 강행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오만한 행태를 바로잡았고, 훼손사건이나 교단내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정책들을 적극 견제해 종단이 바로 가도록 하는데 큰 힘을 기울인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소납 설조는 이상과 같이 꺾이지 않는 신념과 소신, 그리고 부족하나마 씩이 없는 실천과 정진으로 나름의 조그만 성취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는 중단의 여러 원로 큰스님들과 중진대덕 스님, 신도님들의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소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납 설조는 이제 원로 큰스님, 중진대덕 스님, 중도님들의 도움과, 그동안 쌓아왔던 소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버릴래 위기에 서있는 우리 교단을 구하고, 중단된 개혁의 재추진과 교단내 각종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정비를 과감히 추진, 희망찬 21세기를 열어가고자 하는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소납 설조는 우리 교단이 처해있는 여러 어려운 난제들을 타개하여 20세기를 앞꿈이 정리하고 교단이 도약하는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교단을 경영해갈 자신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디 소납 설조가 교단을 바로세우고 도약시키는 큰 짐을 질 수 있도록 선택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만약 소납 설조를 교단의 큰 짐지로 선택해 주신다면 우리 교단이 바로 서고 국민 모두의 귀의처요, 존경처가 되도록 신명을 다할 것을 우선 지면을 통하여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불기 2542년 10월

총무원장 후보 이 설 조 합장